

# “조선시대 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 연구”에 대한 토론문

조정아(부산대학교)

이 발표문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1,465건에 나타나는 분류사의 목록을 정리하고, 인간의 수량사구 유형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료에 나타나는 분류사 목록을 작성하고, 다른 국어사 자료와 구분되는 인간의 수량사구 유형의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량사구 중에서도 특히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유형과 분류사에 주목하여 그 특성과 변화를 포착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지만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덧붙이지는 못하고, 그저 글을 읽어가면서 생긴 궁금증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인간 자료를 대상으로 시대별, 지역별, 성별 등 특정 조건에 따른 수치나 비율을 제시하면서 그 수치나 비율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 수록된 1,465건의 인간이나 특정 인간 묶음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통해 경향성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를 읽을 때도 이러한 해석에 어떤 특정인의 편지가 집중된 사실이나 특정인의 편지에 나타나는 내용적 특성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3쪽에 제시된 ‘(3) 세기별 출현 분류사 목록’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분류사가 분화되고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표자 선생님도 4쪽에서 세기별 분류사 목록이 증가하는 사실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편지 내용으로 인해 분류사가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별 인간 분류사 목록에 어떤 특정 편지나 편지 묶음에 집중되는 분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류사 목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다른 변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8쪽에서 ‘(14) 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유형별, 시기별 분포 현황’을 제시하셨는데, 그 아래 설명에는 “인간에서 사물 관련 수량사구일 경우, 각 세기별로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라고 하셨습니다. (14)번 표는 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분포 현황인가요? 아니면 인간에서 사물 관련 수량사구의 분포 현황인지요

3.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8쪽 ‘(14) 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유형별, 시기별 분포 현황’이나 10쪽 ‘(16)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시기별 분포’의 수치나 비율에 동일한 수량사구의 반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16)번 표를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수량에 의해 비율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량사구 유형의 시기별 변화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수량사구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혹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 7쪽 (10다)는 한자어 분류사지만 적은 수량일 경우에는 고유어 수량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자어 수량사가 쓰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즈믹’은 “누에가 허물을 벗기 전에 뽕잎을 먹지 않고 잠시 쉬는 횃수를 세는 단위”인 ‘좁(◁)잠’으로 고유어 분류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 (21가)와 (21나)의 ‘놈’은 비칭이라기보다 현대국어 ‘놈’의 용법에도 있는 남자아이를 귀엽게 부르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비칭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6. (21라)에서 “‘풍난이’와 ‘년악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지 않지 않지만 이름으로 보아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여성으로 판단하신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참고로 백두현(2004: 33)에서는 풍난이와 년악이를 男奴로 보고 있습니다. 또 (23가)에서 ‘종이나 혼년 두더면 그려도 미음 것혼 거시라도 즈시게 흘 올 거슬’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 ‘종’은 문맥상 여자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을 세는 통칭으로 ‘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7. (24)에서 사람에 대한 분류사 중 노비를 세는 분류사 구(口)는 공신녹권, 노비매매명문 등의 고문서에 한자 표기로는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언간에 한글 표기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노비를 세는 분류사로 ‘口’를 검색해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 1289년 정인경 공신녹권에 ‘奴婢四口’를 하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조실록에도 개국공신에게 이성계가 ‘奴婢二十口’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노비를 세는 분류사로 ‘口’가 대체로 많지만 ‘名’도 보입니다.<sup>1)</sup> 이러한 예로 볼 때 노비를 세는 분류사 ‘구(口)’도 중국 한어(漢語)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전공 선생님께 여쭙보니 ‘口’가 이미 양한(兩漢) 시기에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을 세는 단위로,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천인이나 노예 등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어 양사(量詞)나 일본어 조수사에 대한 역사적 연구나 수량사구 유형의 변화 등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8. 노비를 세는 분류사 ‘구’에 대한 사전적 처리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우리말샘에 ‘구’를 “[옛말] 식구.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어서 참고로 제시합니다. 예문으로 아래와 같이 두 예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예문과 풀이는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과 동일합니다. ㄱ의 예는 식구를 세는 분류사로 사용되었고, ㄴ의 예는 노비를 세는 분류사로 보입니다.

ㄱ. 열세 디를 혼디 살며 얼운 아히 모도아 칠빅 권로디 종이며 고마를 두디 아니코(長幼七百口 不畜僕妾)〈이륜행실도(1518)-옥 28〉

ㄴ. 두어 권奴婢는 잇다감 逃亡호거나 病드러 주그미 이시며(數口奴婢 有時而逃亡病死爲瘠)〈경민편(1519)-개 4~5〉

1) ㄱ. 位百官上, 賜楊州爲食邑, 兼賜金帛·奴婢各四十口·廐馬十匹, 以先降人信康爲衙官.〈고려사 권2 太祖 18년(935년) 6월〉

ㄴ. 九月 乙未 讞部, 以王命, 選州郡奴婢二十五名, 及凡人相爭奴婢, 兩造不當, 未可歸一者, 悉送王所.〈고려사 권33, 충선왕 원년(1309년) 9월〉

9. 참고로 한자 ‘口’가 들어가는 한자어에도 노비와 관련된 단어가 보입니다. (ㄱ)은 대체로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면, (ㄴ)은 의미상 노비와 관련된 한자어입니다.

- ㄱ. 식구(食口), 가구(家口), 호구(戶口), 인구(人口)
- ㄴ. 대구(代口), 분구(分口), 생구(生口), 천구(賤口)<sup>2)</sup>

10. (26나)와 (26다)의 ‘흔 낫’은 혹시 부사 ‘흔낫(ᄃ)한낫’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11. 표준국어대사전에 ‘양위(兩位)’, ‘양위분(兩位分)’이 등재되어 있고, “부모나 부모처럼 섬기는 사람의 내외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언간에도 ‘양위분’이 나오고 하나의 명사로 처리되지 만, 이때 ‘위(位)’도 기원적으로는 분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슬하 형님기셔도 평안호오며 저근딛의도 아즈바님 양위분 안녕호옵시며 각 딛 일안들 호오시니 잇가 두루 아읍고져 호옵누이다<김성일가-151, 1879년, 풍산유씨(생질부) → 김홍락(외숙부)>

---

2) **대구(代口)**: 조선 시대에, 면천되어 양민이 되는 종 대신에 다른 종을 뽑던 일. 또는 그렇게 뽑힌 다른 종.  
**분구(分口)**: 노비나 재산을 나누어 줌.  
**생구(生口)**: ①사로잡은 적. =포로. ②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가축. ③소나 돼지처럼 거래되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천구(賤口)**: 예전에,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사람. 대개 대대로 당시 천역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천인.